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2020 | 통권 제 173호

강원도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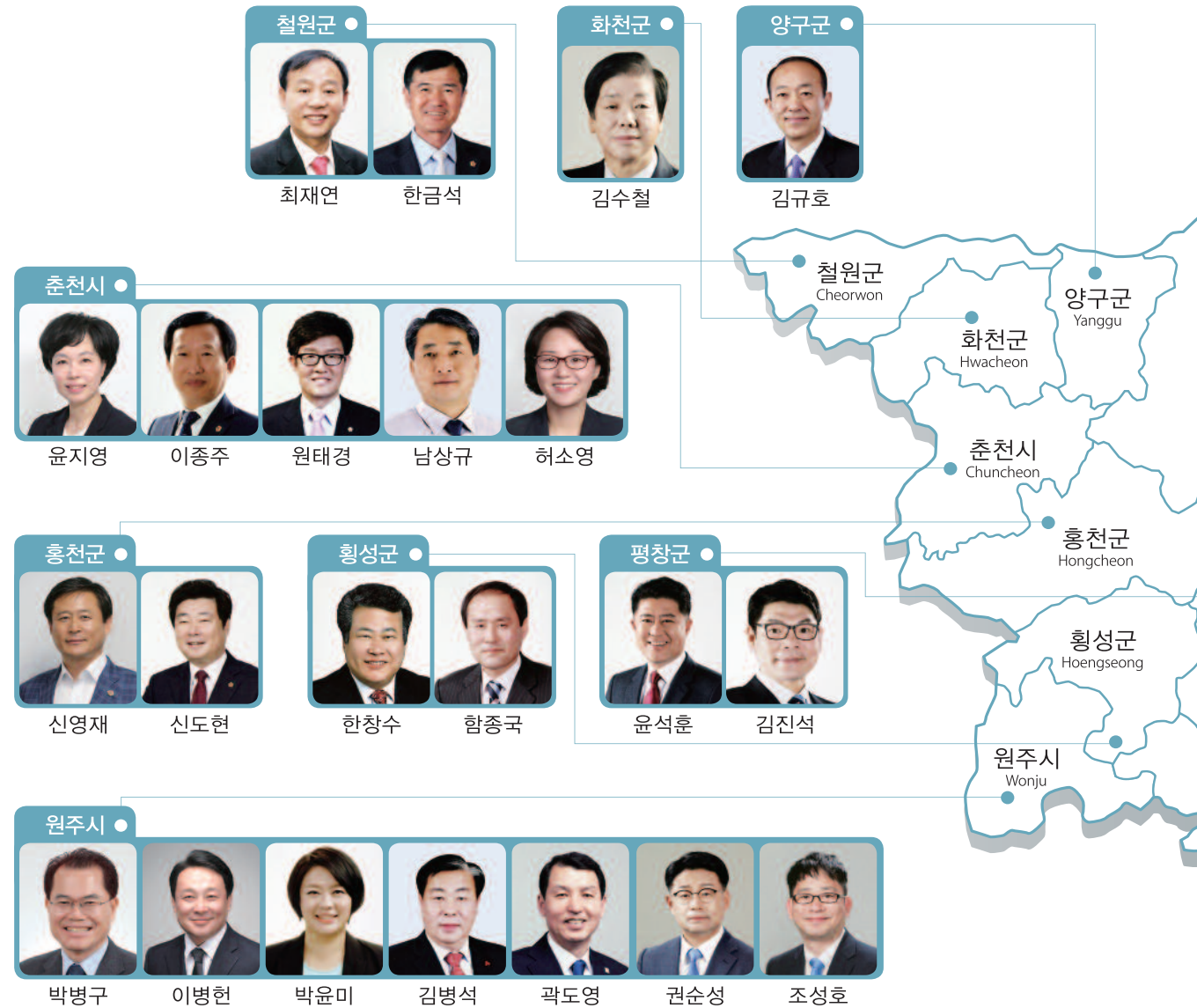
강원도의회

2020 | 통권 제 173호





행정구역으로 본 강원도의회 의원 현황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관계기관 여러분을
강원도의회가 응원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강원도민 덕분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함께 응원합니다.



춘천	윤지영	249-5290	304호	강릉	권순성	249-5208	206호	태백	이상호	249-5436	310호
	이종주	249-5429	신관 4층		조성호	249-5213	213호		김혁동	249-5205	201호
	원태경	249-5015	신관 2층		심영섭	249-5017	신관 3층		주대하	249-5220	211호
	남상규	249-5183	208호		박인균	249-5202	112호		김준섭	249-5288	303호
	허소영	249-5289	307호		반태연	249-5206	204호	삼척	김상용	249-5188	110호
원주	박병구	249-5219	212호	동해	위호진	249-5201	106호		박상수	249-5189	103호
	이병헌	249-5435	309호		심상화	249-5216	207호		신영재	249-5432	102호
	박윤미	249-5004	본관 2층		김형원	249-5291	203호		신도현	249-5215	104호
	김병석	249-5185	111호								
	곽도영	249-5016	신관 2층								



CONTENTS

08

행정구역으로 본 강원도의회 의원 현황

02

강원도의회 의장 인사말

06

제290회 임시회

08

강원 BIG 이슈

-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 강원 경제 일으킬 기관 설립 잇따라

10

도의원의 하루

14

- 김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4)
- 박인균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2)
- 이상호 의원(미래통합당·태백1)
- 김경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월1)
- 김정중 의원(더불어민주당·양양)

상임위원회 활동

24

도정질문

30

-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영월2)
- 곽도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원주5)
-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4)
- 이상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태백1)
-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춘천2)
- 반태연 의원(사회문화위원회·강릉3)
-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인제)

5분 자유발언

38

돋보기

42

- 달라지고 새로 생긴 강원도 생활 조례
- 생생산업 만들기 강원 조례

조례 포커스

46

뉴스 포커스

48

포토 포커스

50

의정 칼럼

51

-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방방곡곡 강원여행

52

- 태백 대덕산-금대봉
- 속초 영랑호-범바위

연간회기 기본일정

56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강원도의회 의정소식지인 '강원의정'에서는
도민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
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
연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강원 의정

GANGWON · PROVINCIAL · COUNCIL · JOURNAL

2020 Vol.173

통권 173호 |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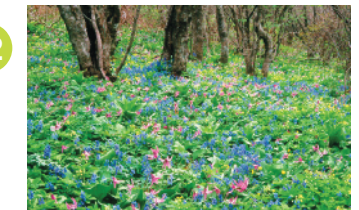
49



50



52



55



발행일 | 2020년 5월 12일
발행처 | 강원도의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
발행인 | 강원도의회 의장 한금석
편집인 |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최성철
기 회 | 강원도의회 홍보담당관
문 의 | Tel. 033)249-5169 / Fax. 033)249-5023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서로의 사랑이며 힘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곁에 도의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푸르른 신록이 가슴을 맑게 채우는 5월은 사랑의 계절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는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이어지며 가족과 친지가 사랑을 주고받는 때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공포는 여전하기에 물리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마음만은 풍성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보다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마스크를 썼습니다. 너나없이 헌혈을 했으며 저금통을 깬고 성금을 모아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서로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역 및 의료 시스템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치렀으며 28년 만에 최고치의 투표율까지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위기와 싸워야 합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의 위험뿐 아니라 최악의 경기 불황이라는 난제를 우리 앞에 남겼습니다. 실업자 증가와 함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등 실물경제의 위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강원도와 18개 시군이 나서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지만 불황의 겨울이 얼마나 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위기에 빠진 이웃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야 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는 국가적 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열망을 모아 강원도의회는 도내 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아 맹렬히 뛰겠습니다. 그 길에 도민 여러분이 함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겹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 함께 손을 맞잡고 일어섭시다!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도민 여러분의 곁에 강원도의회가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의장 한금석

강원도의회 제290회 임시회

도정 질문 통해 알펜시아 매각, 공공의료 정책 등 현안 점검

강원도의회는 4월21일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9일까지 9일간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차 도정질문이 실시돼 강원도 현안에 대해 7명의 도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또 7명의 도의원이 자유발언을 하였고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6개의 조례안과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동의안 등 8개의 동의안을 심의·처리하였다.



도정3기 난제 해결방안 및 도민 생활 안정 방안 점검

이날 1차 본회의에서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철원2)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도내 소상공인과 농업 피해가 가중되는 힘든 상황에서 도 재난 극복의지로 하나된 저력을 보여주시고 계신 도민

께 존경을 표한다”며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3차에 걸친 본회의에서 도의회 임시회 회기 진행과 함께 도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었으며 제1차 도정 질문이 실시돼 도정 현안을 깊이있게 점검

하였다. 4월 28일 있었던 제2차 본회의 도정 질문에서 신명순 의원(더불어민주당·영월2)은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곽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5)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등 최문순 도정3기 난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남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4)은 출자출연기관 운영방법론, 이상호 의원(미래통합당·태백1)은 폐특법 연장 및 강원랜드와 관련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과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종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2)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4월 29일 이어진 3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도정 질문이 진행되었다. 반태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릉3)은 경로·장애인 분리 직제개편 요구를, 조형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제)은 사이버종교 피해에 대한 정책적 구제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을 이어나갔다.

사회적 약자 배려, 자원순환,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조례 눈길

기획행정위원회는 레고랜드 부지와 강원도재활병원,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을 시찰하였으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조례 일괄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하였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되었다. 또 원주·강릉 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토론을 통해 처리하였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도 명예도지사 위촉과 관련해 도의회가 직접 나서 균형감있게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주목되었다.

사회문화위원회는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며 강원도재활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유치 동의안과 국가·지방비 재원비율이 다르고 조직위를 서울에 두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계류되었다. 이번에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폭력에 노출된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감염병의 체계적 대응 등 안정적인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들이라 관심을 끌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 농림수산위원회는 이용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 의견을 내 조례 심의의 모범이 되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강원도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또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교육위원회는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교육자치법규 관련 조례는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교육자치법규를 만들 때 입법 예고부터 공표까지의 과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 개최

“환동해경제권의 혈맥 완성, 동해 성장 발판”

강원 강릉에서 고성 제진역을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가 복원된다. 부산을 출발해 울산 포항을 거쳐 삼척, 동해를 지나 북쪽으로 연결되는 동해북부선은 1968년 노선이 폐지돼 강릉에서부터 고성 제진까지 단절되어 있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확정되고 내년 말 착공이 발표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리라 기대되고 있다.

동해북부선 연결로 새로운 동해안 시대 열려

국토교통부와 통일부는 4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열고 동해북부선 복원 추진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김연철 통일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동해북부선 복원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해 동해북부선 연결로 인한 새로운 동해안 시대를 축하했다.

53년만에 복원되는 동해북부선은 강원 영동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4월 23일 열린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인정돼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사업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말 착공하기로 확정되었다.

동해북부선 건설사업은 남강릉역에서부터 강릉역~주문진역~양양역~속초역~간성역~제진역까지 총 110.9km를 잇는 철도건설사업이다. 단선 철도로 건설되며 총 사업비는 약 2조 8,520억원이다.



국가경쟁력 강화 발판 ...

중국, 유럽까지 세계로 뻗는 길

동해북부선이 건설되면 동해중부선과 동해남부선까지 연결해 환동해경제권의 흐름이 일원화되면서 국가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해안 관광을 비롯해 향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촉진돼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되리라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철도역 유치가 성사돼 주문진역, 양양역 등이 신설되며 이 지역의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고 경기 부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 전역이 철도를 통해 촘촘히 연결돼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철도가 지나는 강릉, 속초, 양양, 고성 지

역에서는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며 한층 들뜬 분위기이다.

‘한반도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남북철도 사업은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이 되고 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동해북부선은 북쪽으로는 제진부터 시작돼 강호, 고원, 라진을 지나 두만강까지 이어진다. 이 철도가 시베리아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된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로 관광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2018년 강원연구원은 동해북부선이 완공되면 생산 4조7,426억원, 부가가치 1조9,188억원, 고용 3만 8,910명 등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추정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동해북부선과 현재 공사 중인 동해중부선, 이미 운행 중인 동해남부선이 연결되면 마침내 한반도 신경계구상의 중심축 중 하나인 환동해 경제권의 혈맥이 완성된다.”며 동해안 평화경제의 시대를 전망하였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행선지가 ‘강릉→제진→원산→베를린’으로 표기된 명예 기차 티켓을 배부하는 이벤트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강원도 일자리재단,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 강원 경제 일으킬 기관 설립 잇따라, 활력 기대

강원도가 도 경제를 일으킬 신규 기관들을 잇따라 설립해 주목된다. 강원도는 강원도 일자리재단을 오는 7월 설립하기로 했으며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도 지난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각 기관에 대한 출연을 요청하는 출연동의안을 가결시키며 강원 경제 건인을 위한 선제적 투자에 힘을 보탰다.

일자리 정책과 정보 통합 지원 ...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강원도는 4월 15일 강원도 일자리재단 창립총회를 열고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설립을 알렸다.

그동안 강원도는 전국 대비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일자리의 질이 낮은데다 청년 인구 유출로 기업의 구인난과 일자리 부재의 악순환이 이어져 고용시장에 적잖은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중복되거나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각종 기관과 18개 시군에서 산발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일자리 정책과 정보를 통합해 일자리재단을 세우고 일자리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청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일자리재단은 강원형 일자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근로자의 복리 후생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역할을 하며 노·사·정 상생의 문화 정착에도 일조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일자리재단은 6월 말 초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우선적으로 인적자원개발부, 고용지원부, 공제사업부 등 3개 부서, 임직원 18명으로 구성해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 일자리재단은 기존의 강원도일자리공제조합,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도일자리센터, 강원신용보증재단 등에서 하던 일자리 업무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도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통합 정보 제공 방안을 도가 나서 제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문해왔다. 일자리재단은 도의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탄생한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제290회기 임시회에서 일자리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 일자리재단의 기본 재산과 운영비 지원을 위해 올해 19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도내 이미지 통합, 디자인 정책 총괄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도의회는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 가결하며 도의 재단 출연을 적극 지원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디자인 산업과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디자인 전담 혁신기관으로 디자인 산업의 수도권 편중을 극복하고 열악한 도내 디자인 전문회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이미지 통합에 대한 연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진흥원은 춘천 후평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건물을 설립하고 최인숙 강원대 교수를 초대 원장으로 초빙해 올해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한다.

도의회에서 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됨으로써 출연된 2억6,000만 원의 예산은 디자인진흥원의 전문인력 구성 등 업무 추진에 사용된다. 도의회는 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며 디자인진흥원 입주기업 유치에 있어 타 지자체 보다 경쟁력 있는 디자인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줄 것과 도내 기업의 디자인 활용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원주 혁신도시 안정적 발전 지휘 ...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원주 혁신도시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세워졌다. 올해 초 세워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 내 기업 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 특화 및 상생 발전, 지역 인재 양성, 정주 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세워지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지휘하고 센터 운영을 총괄하게 된다,

원주시 반곡동에 세워지는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강원도가 국·도비 297억 원을 들여 연면적 1만3,804㎡에 지하1층·지상 10층 규모로 짓는 빌딩형 공장이다. 임대형 공장 66호실과 지원시설 14호실, 오픈 캠퍼스 강의실 등을 갖추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기업과 연구기관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며 산·학·연 클러스터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도의회는 올해 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 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응원하였다.



▲ 원주 혁신도시



김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원주4)

경로당부터 공원까지, 꼼꼼하게 생활 개선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단구동 공원 리모델링, 보도블록도 개선
가전제품, 혈압계 등 지원하며 경로당 생활 환경 개선에 큰 관심
북강원 문화유산 조사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위해 문화유산과 설치에 앞장

원주 천매산은 김병석 의원이 하루를 시작하는 곳이다. 지역구를 걸어다니기 좋아하는 그는 원주에 있을 때는 아침마다 천매산에 오른다. 체육시설에서 주민들을 만나 손을 꼭 잡으며 안부를 묻고 어려운 점을 듣는다. 그렇게 수렴한 민원은 그가 해결해야 할 몫이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원주시의원까지 정당 정치를 30년 동안 했습니다. 도원의 역할은 지역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지역민들이 생활 속에서 바뀌기 원하는 걸 개선해주는 것이지요.”

김 의원의 지역구는 원주 단구동으로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 지역이다. 원주에 있는 공원의 45%가 이곳에 있을 정도이다. 그는 도원이 된 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 지역의 공원을 리모델링하도록 추진했다. 앞으로 천매산을 공원화할 때 소나무 식재를 확대하고 꽃동산으로 가꾸자는 의견도 낼 계획이다.

단구동 내 구곡택지의 인도 개선 사업도 그가 지원한 것이다. 낡은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길을 때 무릎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신제품으로 교체했다.

“이곳은 학교가 많아요. 인도는 학생들의 통학로죠. 학생들이 새로 시설된 보도를 걸으며 좋아하는 것을 보면 의원으로서 보람이 크죠.”

김 의원은 노인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 특히 경로당 개선에 관심이 많다. 그는 노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구석구석을 살폈다.

“원주에만 445개 경로당이 있는데 내부 시설을 자체 조달하다 보니 냉장고 등 집기를 쓰레기장에서 주워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원주시와 협의해 시내 모든 경로당의 가전제품 실태를 조사한 후 필요한 가전제품을 1점씩 구매해주었다.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혈압계도 모든 경로당에 비치토록 했다. 의사 보급도 추진하고 있다. 허리나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힘들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좌식으로 생활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이 모자를 경우 추



가 지원하는 방안과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경로당 회장에게 국가 차원에서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국회의원들과 협의하고 있다.

그의 관심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바꿔주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지난해 9월 강원도에는 문화유산과가 새로 생겼다. 이 부서는 도내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 관리하고 비무장지대와 북강원도의 문화유산을 조사하며 도내 주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이 부서를 신설하는 데는 김병석 의원의 역할이 컸다.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원도에 문화유산이 꼭 필요하다고 끈질기게 주장했고 결국 관철됐다.

“생활 정치부터 시작해서 도정 방향까지 큰 틀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도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는 김 의원. 단구동과 천매산 일대를 걷는 그의 발걸음에 패기가 묻어있다.



박인균 의원
(더불어민주당·강릉2)

민주화 유공자이기에 주민 요구에 더 귀 기울여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평생 민주화에 헌신 ... 기록사업에도 관심
강릉 도심 중앙 하수관로 정비, 교1동 스마트 도서관 설치 지원
‘생태관광지원조례’ 제정 ... 역세권 개발 촉구하며 예술인거리 조성 주장

박인균 의원은 도내 40여 명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중 한 명이다. 그는 강원대 1학년 재학 중 5.18학원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다 보안사에 끌려가 갖은 고문과 훈련을 받았다.

이후에도 노동운동, 탄광노동운동, 인권운동 등에 투신하여 감옥에 술하게 다녀왔다. 그는 간첩으로 몰려 살해당할 뻔했던 삼척 미인폭포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30m 높이에서 밀려 떨어져 죽을 뻔 했지만 치료도 못받고 보안사로 끌려갔다. 연속되는 고문과 감옥 생활로 인해 자그마한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는 고향인 강릉으로 돌아가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강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면서 먹고 살기 위해 조정, 목수, 용접 등 안 해본 일이 없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 “민주화라는 올바른 가치에 투신해 평생을 바쳤고,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는 처음으로 도의회에 입성했다. 정치적 색깔이 분명하기에 박 의원은 더욱 지역구 활동에 집중한다.

“진정한 민의는 주민의 삶 속에 있지요. 주민의 요구를 듣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민주화운동입니다.”

강릉 홍제동과 중앙동 사이를 흐르는 하천 바닥은 도심 하수관보다도 높아 홍수 시 월류 위험이 있었다. 박 의원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교1동에는 아파트가 많고 젊은이와 신혼부부가 많이 산다. 이 때문에 문화적 수요가 컸다. 그는 교1동 공원에 있는 술울공연장에 비가림막을 설치해 누구나 사계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1동 주민센터 내에 스마트 무인 도서관 설치를 지원하기도 했다. 강릉시립도서관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곳에서 언제든지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책을 반납할 수 있다.

옥천동과 중앙동은 강릉의 구도심이다. 강릉중앙시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한 것도 박 의원이었다. 그는 KTX



를 타고 서울에서 강릉으로 오는 이들이 강릉역과 중앙시장 등에서 실컷 머물고 놀고 가길 희망한다.

“옥천동과 중앙동이 도시재생사업 지역으로 선정됐어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안전하고 경쾌하게 쇼핑하도록 중심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한편 강릉역 주변에 예술인 거리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또 도내 청정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생태관광지원조례’도 만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도내 민주화 운동 관련한 기록사업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도내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 사업에 도가 나서야 한다고 진즉에 주문을 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강원민주재단의 민주화운동 기록사업도 그가 중점 추진한 일이다.

“도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하는 박 의원의 목소리에 절기가 넘친다.



이상호 의원
(미래통합당·태백1)

태백을 테마관광지가 다양한 도시로

도청 노조가 뽑은 베스트 도의원,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유명
황지동에 태백타워브릿지 건립, 삼수동에 캠핑장 조성 추진
지역구마다 테마 관광 코스 개발해 제안, 도비 및 국비 적극 유치

지난해 말 강원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상호 의원을 베스트 도의원에 선정했다. 도청노조는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는 모범적인 정치인이라며 이 의원을 뽑았다.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은 그야말로 ‘적극적’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해당 지역구마다 머물다 가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예산을 유지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이 의원의 권유로 황지동에 태백타워브릿지를 건립하고자 국토교통부의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에 응모했다. 이 브릿지가 건설되면 전망대로서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 되는 것뿐 아니라 황지동 위령탑부터 황지자유시장, 황지연못, 황부자며느리공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1박2일 관광지로 다시 태어난다.

황연동은 체험 관광지로 만들자는 생각이다. 내년 봄까지 태양의 후에 세트장을 슬로우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전망대인 오로라파크를 개장해 삼척의 미인폭포와 하이원 추추파크와 연결하면 또 하나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코스에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협곡 관광코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삼수동 절골 유원지에 도의 예산을 끌어와 30억 원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미 태백시에 제안했다. 이곳은 옛날부터 물놀이장으로 유명해 태백시민들의 소풍 장소가 되었던 곳이다. 여기와 연결해 골짜기 위쪽에 있는 산양목장을 체험 목장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역인 추전역을 세계의 유명한 기차역 모형으로 꾸며 테마관광지로 만들면 역시 1박2일 관광코스로 손색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렇게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에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만들면 적어도 2~3일은 태백에서 여행할 수 있고 이것은 태백의 경기 부양에 적잖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고 있다. 그는 이렇게 지역별 발전방안을 직접 구상해 시나 도에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사업화하며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도비는 물론 국회의원을 설득해 국비를 따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초선의원이라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그래서 아침 9시면 도의원 사무실에 출근해 도의 모든 부서의 예산과 업무보고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오후에는 운동화를 신고 지역구 현장 곳곳을 다니지요.”

지역 주민들의 자잘한 요구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는 통리초등학교와 미동초등학교에 체육관을 새로 지어주기도 했고 한보5단지 아파트 앞부터 시내로 가는 인도도 곧 고치기로 했다. 삼수동 골지천의 물길이 모든 농지에 골고루 흘러가도록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도 지원해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밀려난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등 앞으로 그가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그런데도 자신감이 넘친다.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시의원, 도의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합심해 일하면 안 되는 일이 없지요. 태백의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경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영월1)

법무 경력 바탕, 주민에게 혜택주는 정치할 터

법무 전문가 출신, 도 조례의 원칙과 기준 살피 조례 제·개정 추진
발달장애인 성폭력실태 조사와 지속적 보호 추진 큰 성과
마을 인도 설치 등 주민 요구 수렴, 고씨굴 관광단지 리모델링 적극 지원

김경식 의원은 법무 전문가다. 법학을 전공했으며 법무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기업에서도 법무 관련 업무를 했다. 도의회에 입성한 후 그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진 것 역시 조례이다. 조례 제정 등 의정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함께 연구하자며 도의원들과 의정발전연구회를 만들어 간사를 맡았다. 앞으로 의원들과 협의회 자치법규를 연구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조례는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 조례에는 용어나 원칙이 분명치 않거나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검토하고 조정하면 주민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도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결산검사위원은 도지사가 선임해왔다. 김 의원은 “도의회가 도청의 결산을 검사하는데 도지사가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선임 권한을 도의 장에게 부여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오랫동안 도교육청과 협의하며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연구하다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다른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것은 조례를 기반으로 한 생활정치 사례이다.

“영월 토박이이자 30년 넘게 직장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는 직장인처럼 도의원 업무를 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저녁에는 주민들을 만나는 일상을 늘 유지하죠.”

김 의원은 도민에게 고용된 사람처럼 일하는 만큼 도민들의 작은 요구도 허투루 듣지 않는다. 영월에 사는 여성장애인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김 의원이 이룬 큰 성과다. 지난해 그는 영월군과 협의해 발달장애인 성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성폭력예방을 위해 여성 자율방범대원이 여성 발달장애인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학생이 25명밖에 안 되는 작은 학교이지만 녹전중학교에 식당과 실내체육실을 설치한 것이나 김삿갓면 외룡 마을에 2km가 넘는 마을 길을 추진한 것도 도의원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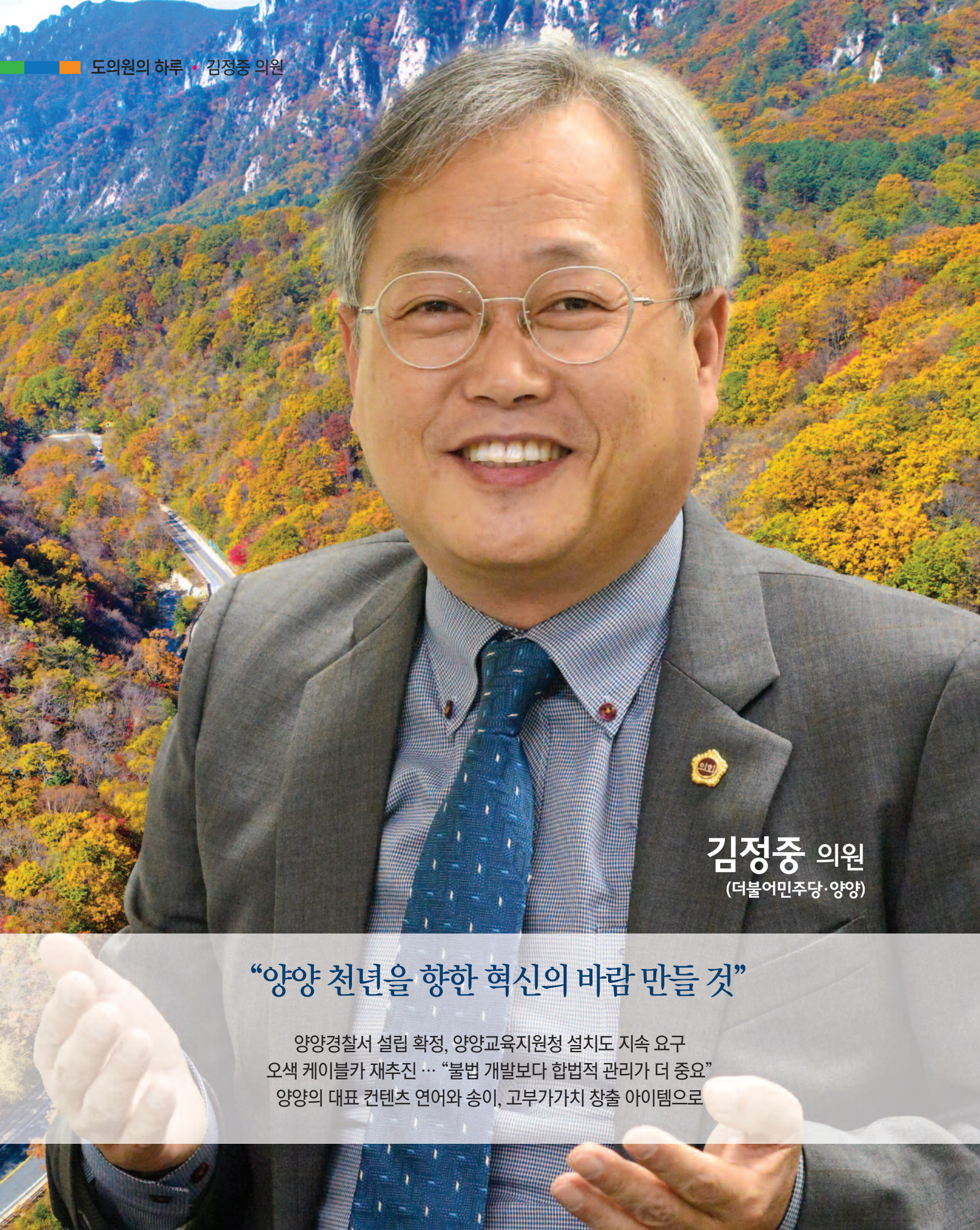


주민의 불편에 귀 기울인 결과이다.

“녹전중학교에 가보니 아이들이 화장실 앞에서 배식을 받아 과학실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곧장 식당 설치를 추진했죠. 김삿갓면 외룡 마을 길은 본래는 인도를 놓아주지 않는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사고 위험이 너무 커서 인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 올해 공사가 시작됩니다.”

김 의원은 요즘 관광객수가 급감하고 있는 고씨굴 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도 매진하고 있다. 국·도비를 포함해 약 13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로부터 투자 심사를 승인받아야 하므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현지 방문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주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김 의원의 행보가 미덥다.



김정중 의원
(더불어민주당·양양)

“양양 천년을 향한 혁신의 바람 만들 것”

양양경찰서 설립 확정, 양양교육지원청 설치도 지속 요구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 … “불법 개발보다 합법적 관리가 더 중요”
양양의 대표 콘텐츠 연어와 송이, 고부가가치 창출 아이템으로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이미 개통되었고 동해북부선이 유라시아까지 연결된다면 양양은 동해안 발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양양 600년 역사에 이처럼 장대하고 기대에 찬 시기는 없었습니다.”

양양의 비전을 말하는 김정중 의원의 목소리가 당차다. 양양 천년을 내다보는 김 의원은 어느 때보다 도의원으로서 지역 인프라 확충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가 우선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양양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신설이었다. 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후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치안 수요가 늘었고 2021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예정인데도 양양에 경찰서가 없다”며 경찰서 설치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그 결과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양양교육지원청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도 꾸준히 주장해왔다.

“1지자체 1교육지원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요. 이것이 통과돼 양양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주민들과 함께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낙산도립공원 지구 해제 이후 군관리계획변경(안)을 강원도에 입안하고 신청하는 데 공을 들였다. 최근 이 변경안은 주민들 뜻과 달리 낙산해변 상업지역의 고도지구 지정에 별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고도 제한을 하면 또 다른 족쇄가 됩니다. 환경은 보호하되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은 용이하도록 내실있는 군관리계획을 완성해 주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환경부 부동의를 얻어 행정심판이 청구된 오색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도 매진하고 있다. “케이블카는 사회적 약자와 자연을 공유하는 공정과 평등의 시설이며, 일상적으로 환경을 관리하면서 보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긴 해안을 보유한 양양 바닷가 주민들을 잘살게 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인구항에 올해 25m짜리 방파제를 만들고 기사문항을 관광어항화하는 ‘뉴딜300사업’ 등은 어민들과의 대화에서 비롯되었고, 주민들이 일궈낸 쾌거다. 김 의원은 강현면부터 현남면까지 7곳의 씨핑특화지구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적극 이끌어낼 참이다.

그는 연어와 송이의 브랜드 가치에도 관심이 깊다. 양양에서는 이미 연어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연어를 바탕으로 관광산업과 양식업을 활성화한다면 새로운 소득원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송이축제라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잎새, 새송이 등 다양한 버섯을 상품화해 주민소득을 높이지는 것이다.

시간이 날 때면 민원 현장은 물론 전통시장과 농·어촌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난다는 김 의원은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도의원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양양 천년을 향한 혁신의 바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태경



도정 질문 등 의사 일정 협의

의회운영위원회는 4월 21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0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2020년도 제1차 도정 및 교육 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28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실국장급 이상 8명, 총 36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당면 안건 심의·처리를 위해 제291회 강원도 의회 임시회를 5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제290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강원도지사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제291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도영



레고랜드 조성사업 부지 매입 관련 면밀한 업무 추진 주문

기획행정위원회는 4월 24일 제2차 회의를 갖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5개의 안건에 대해 심사·의결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실시한 레고랜드 부지 등 공유재산 현지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현재 레고랜드 조성사업은 공정을 18%로 정상 진행되고 있으나 의회에서 우려한 부지 매입 관련 채원 조달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 사유지 취득 건 관련하여 향후 계획된 사업인 국제컨벤션센터 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고, 유적공원과 박물관은 춘천시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취득 건 관련하여 인근 부지를 신축부지로 추가 매입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
- 강원도 자율방범 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주·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심영섭



예술인 복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조례 원안가결

사회문화위원회는 4월 22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회하여 김병석 의원 등 3인이 각각 발의한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심의하였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도내 예술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강원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강원도 여성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발의한 「강원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피해자 보호규정을 구체화해 수정 가결하였다. 또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강원도재활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공재활병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되었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재활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박효동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심의·가결

농림수산위원회는 4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갖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다.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다.

조례 내용을 보면,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지사·도민·사업자의 책무, 강원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동 위원장은 “본 조례안 제정으로 기존의 자원을 순환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등 자원 부족 및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림청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라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자연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입장료, 시설사용료, 입장료 등의 감면, 이용시간 등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김정중 의원)
-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지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철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토대 마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동 의안을 가결하였다.

4월 22일 제2차 회의에서는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처리하였다.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에서 친환경 전 기자동차 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도내 상당수의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양한 산업 육성이 어려운 가운데 새로운 친환경 대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모빌리티 산업이 향후 강원도의 성장을 이끄는 신산업으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재)강원도 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출연 동의안
-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종주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현행 조례 정비 및 관련 조례 통합, 입법 절차 체계적, 효율적으로 교육위원회는 4월 22일 제2차 회의를 갖고 이종주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

본 조례안은 현행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교육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조례」를 통합·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과정 및 절차의 체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되었다.

통합 조례안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입안 및 공포 등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입법과정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원회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교육행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 주요처리 안건

- 강원도교육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제2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영월2)

Q 육아수당 지급을 통해 출산율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도지사 최문순 : 그러함. 구체적인 수치를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만 줄기는 줄어도 전국에서 제일 적게 줄어드는 통계수치가 있음. 해외의 사례를 조사한 후 성공사례를 채택한 것이므로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Q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미루는 부부들에게 육아수당 보다 고용해결이 더 중요해 보임?

A 도지사 최문순 : 육아문제는 일자리에서부터 문화시설, 경제인프라 등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육아문제를 따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함.

Q 작년도 육아수당 지급에 대해 다자녀 인센티브가 없었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사각지대로 인식하고 있고 정책적 판단을 다시 하겠음.

Q 육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생 대책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염려되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많은 돈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세

계 최저로 내려간 것은 그동안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 새로운 정책을 시도해 봐야 하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Q 스웨덴의 경우 육아휴직 아빠할당제가 있는데 강원도만의 시책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승진제도 등 총체적으로 맞물려 한두가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권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음.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보겠음.

Q 은퇴를 앞둔 신중년을 활용한 경제활력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뚜렷하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줄 방법은 적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연장이 가장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청년일자리와도 연계되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

Q 21대 총선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 중 관심을 가진 공약이 있는지?

A 농정국장 이영일 :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 공감을 얻었음.

Q 반려동물 유기문제가 심각한데 처리방법으로 안락사 비율이 높음에도 강원도는 직영보호소 운영으로 상대적으로 안락사 비율이 적다고 함. 앞으로 열악한 보호소를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

A 농정국장 이영일 : 공감함. 현재 13개소 중 위탁 4개소도 직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하겠음.

Q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유기조건이 되는데 이러한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 및 시설확충 등 반려동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지?

A 농정국장 이영일 :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보호에 대한 문제, 소유자에 대한 교육, 워크숍 등 홍보해 나가고 있음. 현재 반려동물 놀이시설은 두 군데 있고 금년부터 강릉, 영월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2개 소씩 늘려갈 계획임.

제2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곽도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원주5)

노력하고 있음.

Q 춘천 레고랜드가 우여곡절 끝에 착공을 해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현재 공정률이 18%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 7월에 개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Q 설악권 주민들의 38년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2015년 조건부승인 후 5년, 당초 추진 후 18년간 지지부진한데 향후 강원도의 대응방향은?

A 도지사 최문순 : 현재 행정심판 청구 중이며 행정심판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음.

Q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2019년 6월 기준으로 29.9%로 10개 도시 평균 38%보다 낮은 9위로 이주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단순히 이주 인원만 봤을 때는 강원도가 세 번째인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주여건 개선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Q 춘천교대 도 출신 정시 합격자 중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해마다 줄고 있고 강원도형 교사육성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A 교육감 민병희 : 지역인재 전형으로 2021학년도 92명, 2022학년도 110명까지 늘려나갈 계획임.

Q 타 지역 출신 교원의 임용 후 일정 기간 재직 후 강원도를 떠나려는 성향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는데?

A 교육감 민병희 : 가산점 제도를 도입해서 현직 교사들이 타 시도로 전출할 수 있는 길을 봉쇄했음. 현재는 타 시도 전출 현황이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개선되리라고 예상함.

Q 강원도정의 알펜시아 매각 문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레고랜드 테마파크, 올림픽경기장 활용방안 등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남은 임기 2년 동안 해결할 수 있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레고랜드는 이미 본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림픽경기장도 올해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음.

Q 2020년 1월 20일 강원도와 맥킨리와 자산 및 회계 실사 협약 체결 시 실사보증금 15억 원 납부를 조건으로 했는데 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산된 근본적인 원인은?

A 도지사 최문순 : 컨소시엄 내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봄.

Q 맥킨리와 유의미한 진행은, 단절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건지?

A 도지사 최문순 : 맥킨리뿐만 아니라 두세 군데가 늘 협상 중인 상태에 있음. 어느 한 군데에 독점적인 권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제2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남상규 의원(기획행정위원회·춘천4)

Q 도지사 재임기간 중 출자·출연기관을 많이 만드셨는데 만드신 이유가 있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외부에서 계속 요청이 있어 왔던 것인데 강원디자인진흥원과 2018평창기념재단 등은 대부분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어 왔던 것들임.

Q 최근 강원도의 바이오테크와 이문메드 2개사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진단키트, 바이오신약 임상실험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음. 원천기술을 연구하는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12년째 접어드는데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는데?

A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원천기술을 연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업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Q 강원인력육성재단,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등 공직자 출신 대표 선임율이 높는데 전문성 발휘에 문제점은 없는지?

A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민간인이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직 경험의 유관 경험들을 살려서 해당 분야의 중요한 파트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임. 장단점이 있음.

Q 신용보증재단 직원 총 58명 중 강원도 출신이 1명, 강원도 소재 고교 졸업이 7명,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이 48명인데 여기에 표기된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 중 적어도 70%는 강원도 출신이 아닐 것이며 이것은 강원도 인재 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A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음.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부분의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들을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다음 평가지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Q 기관들이 지역의 인재를 쓰게끔 하려면 적어도 기관들이 긴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역에 대한 기여도 같은 평가지표라고 생각하는데?

A 기획조정실장 차호준 :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함.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주는 지침과 기준에 따라 지표를 선정하는데 지역인재라든가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겠음.

Q 출자출연기관은 수익성 제고, 지역인재 채용 확대, 해당 기관장들의 전문성 증대, 세 가지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지적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도 개선할 게 있으면 하고, 인사할 게 있으면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음.

Q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 아이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대체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홈스쿨링으로 자체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급식비를 지원 못 받고 있는데?

A 교육국장 천미경 : 분명히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고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어떤 방식이든 모든 아이들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함.

제2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상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태백1)

Q 사행산업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매출총량제 개선 방안으로, 매출총량 목표상한액 조정이 필요하며 매출총량에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할지 고려해야 함. 불법 도박시장 단속 등 노력해주시기 바람.

A 도지사 최문순 : 그렇게 하겠음.

Q 강원도는 작년 8월 강원랜드 가족형 휴양복합리조트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과 현재 진행상황, 앞으로 계획은?

A 도지사 최문순 : 강원랜드를 도박기업으로 두지 않고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나 마리나 베이 샌즈처럼 가족형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리조트로 계획하고 있음. 외국 투자를 유치하여 국비나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Q 국내외의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복합리조트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강원랜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폐광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 바람.

A 도지사 최문순 : 그렇게 하겠음.

Q 오는 2025년 종료되는 폐특법 적용 시한을 연장하거나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의 내용 폐지가 필요해 보이는데 폐특법 연장에 대한 의견은?

A 도지사 최문순 : 폐특법 시한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함. 10년마다 도민들이 큰 조바심을 내지 않도록 시한 자체 조항을 아주 없애야 하며 21대 국회가 열리면 이와 관련한 의견을 즉시 제출할 것임.

Q 폐특법 연장을 반대하는 쪽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논거는 준비되어 있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폐특법 연장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관련된 법안과 정책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함. 21대 국회가 열리면 진행하겠음.

Q 강원도의 직제를 보면 건설교통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총무행정관 등 4개 실국은 본청 16개 실·국 담당 중 34%를 차지하고 있음. 업무의 관리·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조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음.

Q 직무대리 운영과 관련해 행안부 등 감사 시에도 지적 사례가 있었는데 직무대리 해소방안은?

A 도지사 최문순 : 취임 이후 직무대리를 굉장히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음. 가능하면 직무대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시 유념하겠음.

Q 제천~영월 구간보다 제2경춘국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도 전체의 이익으로 판단한 것임. 제천~삼척고속도로는 약간의 시차가 있더라도 임기 내에 반드시 될 사업이라 판단하고 있음.

Q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는 비용편익분석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A 도지사 최문순 : 강원도의 도로·철도는 다 비용편익분석이 나오지 않음. 동해북부선, 제2경춘국도도 물론이고 춘천~속초 간 철도도 그러함.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는 강원 남부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마지막 남은 사업이니 꼭 완성시키도록 하겠음.

제2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춘천2)

Q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현재 공사진행률로 봤을 때 내년 개장이 가능한지?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임시 개장은 내년 5월, 본개장은 7월에 계획하고 있음. 역공정으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것임.

Q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유적공원 및 유물전시관 사업은 춘천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춘천시와의 협업 관계는?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춘천시에 유물전시관은 교육과 공공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형태로 건립해 줄 것과 과거 춘천시민들이 즐겨 찾던 산책로를 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Q 하중도의 수변 생태공원과 삼악산 로프웨이, 전시컨벤션센터 및 서면대교 신축 등 레고랜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개발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레고랜드의 여러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음. 춘천도 테마파크뿐만 아니라 호텔, 컨벤션, 기타 관광시설 등 복합타운을 형성하여 춘천의 미래로 육성해야 함.

Q 레고랜드 개장에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중도개발공사의 자금난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A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 현재 약간의 자금난은 있으나 테마파크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부지에 대한 매각에 속도를 내서 자금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Q 평상시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과 더불어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자가격리수칙 준수와 같은 공익질서 요구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 등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은?

A 교육국장 천미경 :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시민교육을 많이 강조해 왔고 이 교육이 이번 사태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얼마나 중요한지가 증명된 것 같음. 앞으로 감염병뿐 아니라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한 교육을 하겠음.

Q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등교수업이 이루어질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A 교육국장 천미경 : 학교 방역을 위해 일시적 관찰실 설치, 전문기관 특별소독, 등교 일주일 전부터 학생들의 건강체크, 교실 책상의 일정 거리 두기, 보건용 마스크 · 면마스크 · 체온계 준비 등 체크리스트를 일선 학교에 전달하였음. 등교 전 학부모 대상 충분한 홍보와 학생들에게도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Q 강원도교육복지재단 진행상황은?

A 기획조정관 장주열 : 재단 설립의 기본 목표로 기부금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잡았는데 4년 동안 기부금은 실제로 2억 1,000만 원 정도로 목표의 0.9%임. 사업내용 부분도 뚜렷함 없이 진행되고 있음.

Q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교육청과 머리들 맞대든지 폐업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A 기획조정관 장주열 :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작은 학교 부분은 단위 학교가 원하는 사업을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음.

제3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반태연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강릉3)

각하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Q 육아기본수당의 경우 최소한 3년 정도는 시행을 해보고 성과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통계 수치상으로만 보면 강원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이지만 선불리 결론 내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함.

Q 전국의 13개 시·도가 경로장애인과를 분과 했는데 분과에 대한 생각은?

A 도지사 최문순 : 검토하겠음.

Q 최근에 5개 의료원에 대해서 전담병원 운영자금 1차개산금으로 4억9,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인건비, 운영비, 소상공인 거래대금 등 매월 평균지출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A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현장을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Q 1년에 80명씩 도내에서 결핵으로 사망하는데 코로나19와 같이 결핵도 대책을 세워서 전국에서 1·2위를 하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함.

A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 : 강원도가 노인, 어르신 인구가 좀 많은 편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순회 조사해서 결핵을 사전에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음.

Q 사이버 도박이 최근 군장병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학생 도박과의 연관성이 있고 예방을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A 교육감 민병희 : 지난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됐음. 교육청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학교별로 예산도 배정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 강원센터와도 지속적인 협업을 해왔음. 향후 예방교육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도박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

Q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코로나19로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그 점을 우리 도가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하겠음.

Q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 병원을 만드는 것으로 정해져 있고, 도내 5개 의료원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 결과가 경영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조짐이 있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겠음.

Q 알펜시아는 매각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애물단지라 평가됐지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에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견은?

A 도지사 최문순 : 그러함. 여러 가지 가치 있는 역할을 했다고 봄. 그렇더라도 아직 7,700억 원 정도의 빚이 남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가 남지 않게 매

제3차 본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인제)

이 3,000여 개가 있고, 1년에 1회 이상 학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이버종교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은밀하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센터라는 곳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림. 그러나 명백히 학원법을 위반했다면 지도·점검 및 고발 조치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음.

Q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는 약 3만~5만 명의 직접적인 사이버종교 피해자들이 있고, 특히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횡성 등은 사이버종교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하지만 현재 그들을 구제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은 없음. 전문상담기관이 없어 경기도에 위치한 상담소까지 오고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도지사 최문순 : 지난번 조형연 의원님 주선으로 신천지 회심자들을 직접 만난 적이 있음. 그때도 많이 느꼈지만 오늘 새삼스럽게,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Q 도내에 사이버종교에 대한 상담 기능만이라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하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상담시설만 있어도 도민들이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그리고 상담소에서 상담 기능뿐만 아니라 예방 기능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A 도지사 최문순 : 도내 종교계 인사들이 모인 단체들이 여럿 있으니 협의를 통해 상담소 설치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음.

Q 상담과 예방 기능을 위해서 기성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큰 방법임. 특수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아주 장기적인 전쟁을,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람.

A 도지사 최문순 : 신천지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교계와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Q 지금까지 사이버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종교에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임. 또 ‘나라면 절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임. 하지만 그들은 수개월, 많게는 수년 동안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관리하고 기다림. 포섭 대상자는 조작된 인간관계를 갖게 되며, 포섭 대상자가 되면 열의 아홉은 걸려들 수밖에 없다고 함. 거짓으로 만들어진 인간관계, 목적이 있는 인간관계 이는 명백한 범죄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학원이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 법에 따르면 사이버종교에서 운영하는 센터는 명백한 학원법 위반인데?

A 행정국장 최수길 : 자료를 찾아보니 센터라는 것이 학원의 형태라든가 평생교육의 형태로 위장해서 인문학 강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또 일부 교리도 전파하는 것으로 보도된 것을 봤음.

Q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라는 특정 종교와 센터시설에 대한 것도 다들 알게 되었는데, 현행법 위반에 대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A 행정국장 최수길 : 지금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

03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의원 전문성에 바탕 둔 상임위원회, 현안 해결 위한 특별위원회

[편집자註] 강원도의회를 소개하는 <강원의정>은 강원도의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강원도의회 모든 것’을 연중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강원도의회 내 상임위원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강원도 및 도교육청 행정사무 및 조례,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

도의회는 내부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관의 안건을 심사하거나 의안을 제안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도의 행정 사무를 감사한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다시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의결된다.

강원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문화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도의장은 의원들의 의견, 전공 분야 등을 감안하여 해당 상임위원을 선임하며 의장의 추천제 형식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의회운영위원회는 6개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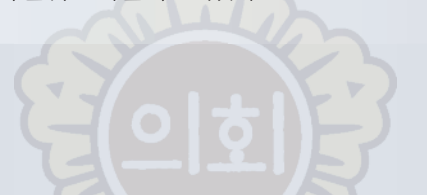
규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강원도의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평화지역발전본부, 소방본부, 강원도감사위원회, 총무행정관, 강원도립대학교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사회문화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도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회문화위원회는 문화관광체육국, 보건복지여성국, 대변인, 인재개발원의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 녹색국,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환동해본부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제건설위원회는 경제진흥국, 첨단산업국, 일자리국, 글로벌투자통상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교육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교육청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 예산결산 및 윤리 심사와, 빠른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

도의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는 당해 결산 및 예산안을 심의한다. 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도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와 징계 및 자격 등을 엄격히 심사한다.

이밖에도 도내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접경지역 지원책을 논의하는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폐광지역 도시재생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속의하는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2018년 강릉·동해·속초·인제·고성 지역에 발생한 사상 최악의 산불 발생 관련 현실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산불 피해특별재난지역복구대책 추진 특별위원회, 도내 500개가 넘는 기존 송전선로 뿐 아니라 추가 건설 예정인 송전선로 피해를 알리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송전선로 대책 및 반대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긴급 지원

장덕수 의원

(사회문화위원회·정선1)



방사광 가속기와 수소융합 에너지 대형 연구시설 유치

남상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춘천4)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대출 지원은 은행 내부 신용등급을 적용하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상황만 초래할 뿐임.
- 강원신보 대출 실적은 전국 4위라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 시중 은행 자체 내부 신용등급을 신용평가사 등급으로 적용하고, 소상공인공단에서 시행하는 영세자영업 대출 업무도 담보 대출을 제외한 신용평가만을 적용하여 제2금융에서도 이차보전 대출 지원 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이나 권고사항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2017 국가대형연구시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형연구시설이 있으며 특히 강원도는 첨단산업을 주도해야 할 국책연구소 및 대형 연구시설 건립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음.
- 타 지역은 이미 지역 소재 대형 연구시설과 미래 핵심산업 육성에 매진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청정지역이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상수원지로서의 가치만 강요당해 왔으며,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이 지체되었음.
- 첨단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핵심원천기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대형 연구시설인 방사광 가속기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센터가 춘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노력을 촉구함.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포스트(POST) 코로나를 준비하고 변화에 대응하자

신명순 의원

(농림수산위원회·영월2)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 경제 역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와 시군에서도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들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전방위적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인류의 삶은 코로나19 이전(BC:Before C)과 이후(AC:After C)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고 재택 근무, 홈 이코노미 사업의 성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 진단함.
- 지방정부가 코로나 이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지방 소도시가 살아날 수도 있고 또 소멸의 길을 재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강원도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 해법을 찾아야 하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능동적 대응이 필요함.



해양문학제 개최에 관한 건

심상화 의원

(기획행정위원회·동해1)

- 동해시를 위시한 영동지역은 해양문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강원지역의 문학사가 학계에서 심층적 연구대상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임.
- 이는 해당 지역의 문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미학적 수월성이 떨어져서라기보다는 전문 평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크므로 지역 문학의 온전한 복원과 심도 있는 탐구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한국 근대문학의 성립 과정에서 바다는 삶의 장이요 내면적 전유의 대상으로 존재하게 됐음에도 한국 해양문학은 여전히 소재주의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옴. 그 가운데 문학지 발간, 해양문학상 등 제도적 성과를 냈음.
- 향후 해양문학제를 통한 심포지엄 및 해양문학연구단행본, 함상 시낭송회, 해양시 음악회, 시화전, 해양문학상 시상 등 강원권의 대표적 문학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함.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코로나19와 강원도 공공보건 정책의 방향

허소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춘천5)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높은 감염병에 대처해야 하는 것은 지역 공공의료 체계이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감염병을 다루는 감염내과나 예방의학과 등은 공공의료 영역에서 전문한 상황임.
- 코로나19 정국에서 부족한 인력과 조직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공직자들이었음. 앞으로 더욱 강하고 복잡한 2차 파도를 대비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을 제안함.

- ① 지역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함
- 의과대학입학시 지역할당 확대 및 의무화 방안 고려
- ② 공공의료 시설의 선진화가 필요함
-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한 시설 투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접근성 개선
- ③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함
- 광역 단위 상시 본부 설치 및 강원도형 보건의료체계 마스터플랜 구축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에 대해

박윤미 의원

(교육위원회·원주3)



- 건강실무사는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원으로서 학생의 신체 발달과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보건교육 등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응급처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건강실무사는 국가 간호사 자격증이 있고, 실제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나 일선 학교에선 건강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여러 가지 민원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학교간호사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심리적 안정과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의료인으로서 자존감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학교간호사로 바꿔 줄 것과 다양한 감염병에 대비한 학교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강원도의 이해

박병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원주1)

- 도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최문순 도정 운영 방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에 대한 성실한 자료 제출이 요구됨.
- 교통 · 교육 · 환경 · 투자 · 일자리 · 관광 등 타 지역에 비해 클래스가 있어야 함에도 부족함이 많은 강원도를 위해 놀이터 하나라도 클래스가 다르게 만들어 사람이 모이는 지역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적극 공감함.
-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꿈꾸는 정치인이 되어야 하고 꿈을 이루려 준비하는 정치가 중요한 시기임.
-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살기 좋은 나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 손녀들이 꿈을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대한민국 중심에 강원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

의정 상식

5분 자유발언과 도정 질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5분 자유발언은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들은 주요 의안 이외에 자기의 정책과 의견을 피력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이라는 제도를 두어 안전이나 도정사항 전반 또는 기타 정책에 관한 의견, 건의안 등을 개진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매 회기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정 질문은 연간 3차례만 진행됩니다. 보통 매년 3월, 6월, 9월에 1, 2, 3차로 이루어지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4월에 진행되었습니다. 도정 질문은 도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도지사 등 도정 관계자와 도교육감 등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제도입니다. 도정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정책 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도의원들은 한 가지부터 여러 가지 주제까지 자유롭게 다양하게 질문을 하고 도와 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심영미 의원 외 3명

Q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의 두려움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조례로 정해진, 감염병 발생 시 도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요?

A 감염병이 발생하면 도내 모든 의료인과 기관, 단체는 감염병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에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해요. 도민은 감염병 관련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 반면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요. 도지사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 사업에 적극 나서야 해요, 그에 앞서 감염병 예방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강원도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해야 해요, 다만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안」

발의 | 김규호 의원

Q 강원도에는 군사시설과 훈련장이 많아 소음 피해를 겪는 도민이 많아요.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요?

A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안이 생겨 앞으로는 소음피해 주민을 강원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도는 앞으로 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또 도내 군부대와 관련된 군공항, 사격장 등 군사시설과 군사훈련으로 인해 소리와 진동 등이 발생하여 도민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현황을 파악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피해 예방 대책 등의 조치를 요구해야 해요. 이와 함께 무료 법률상담과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남상규 의원

Q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선할 방법을 찾았나요?

A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어요. 도정 발전을 위한 제언과 자문 역할, 도정 홍보, 정부 및 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동안 수십 명의 명예도지사를 위촉했어요. 그러나 자격 논란이 여러 차례 일었죠.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하고 전문성있게 심사하여 명예도지사를 위촉하기로 했어요. 특히 위원회에는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해 명예도지사 위촉에 좀 더 균형감을 갖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발의 | 허소영 의원 외 2명

Q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나 강남역 여대생 살인사건 등 여성 폭력은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여성 혐오에 의한 폭력이 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여성 폭력 실태는 물론 폭력의 배경과 결과를 조사하여 알리고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급히 추진해야 합니다. 또 여성 폭력을 저지른 자를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법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한편 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번



여성폭력 관련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예산은 물론 주거 생활과 자립, 자활, 법률구조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 | 박인균 의원 외 3명

Q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보다는 근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노동이 일의 가치를 더 높이는 표현이라 법적 용어부터 바꾸자는 의견이 많지요?

A 지난 제287회기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강원도 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통해 도교육청 관련 조례에서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강원도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통해 30여 건의 관련 조례에 나오는 '근로'라는 용어를 모두 '노동'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는 사람을 '부지런히 일하는 존재'로 순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는 뜻으로 좀 더 주체적이라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발의 | 강원도지사

Q 영세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정세액을 고지받았을 때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관련 법률이 어렵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납세자는 과세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과세에 대한 의견 진술을 해야 하고 만약 과세 전 적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세한 사업자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마련해 과세 불복 신청을 할 때 사업자가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원도 선정대리인은 강원도가 위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발의 | 강원도지사

Q 시각장애인이 자동차를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이전과는 달라진다면가요? 또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가 나중에 추징을 당할 경우 이자까지 내야한가요?

A 시각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었어요. 이전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까

지만 해당되었는데 앞으로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까지 포함되어 장애인을 돌보기 위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가 나중에 추징을 받게되어 감면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이자도 내야 해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1일당 10만분의 25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강원도지사

Q 강원도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인 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에 대한 관리기준이 바뀌었다면가요?

A 이제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숲나들(<https://www.foresttrip.go.kr>)에서 예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개별 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고요. 집다리골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의 경우 휴일이 없어져 특별한 사용제한일이 아닌 이상 연중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사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도에서 제한일 7일 이전에 고지해야 해요. 일일 입장객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오후 5시까지로 조정되어 좀 더 여유롭게 휴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야영데크는 5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과 카드 뿐 아니라 강원상품권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다소 조정되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산업 만들기 강원조례」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조성호 의원 외 2명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 이 조례를 통해 도는 이모빌리티 산업 집적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개발과 사업화,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 확보, 자동차 부품 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안」

발의 | 김정중 의원 외 5명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 및 적절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제정되었다.

이 조례에 따라 도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을 최대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거나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고 순환 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도민 역시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생겼다. 도는 앞으로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도민실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강원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병석 의원 외 2명

그동안 직업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창작 여건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온 예술인의 처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조례이다. 이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도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예술인들이 차별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도는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취약 예술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개선책 마련 

소방공무원 증원, 보건안전과 복지도 지원

강원도 내 소방공무원이 늘어나고 보건안전과 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일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 소방공무원 32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증원되는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대 88명, 구조대 12명, 구급대 36명, 지역대 111명, 소방특별조사 42명, 화재조사 29명 등이다. 양구와 화천에는 소방서가 새로 신설된다.

소방공무원 증원은 정부의 소방 현장 부족인력 보강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방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고 담배개별소비세 중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로 인상했다.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라 화재 진압 및 구조 인력 부족으로 애를 먹던 일선 소방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량이 다소 줄고 보다 안정적인 소방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 지원책의 근거도 세부적으로 마련되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제289회 도의회 임시회

에서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발의 : 박병구 의원 외 10명)을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를 바탕으로 업무 과다와 스트레스 속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동호회 운영, 해외 연수 및 휴양시설, 구내식당 운영비, 원거리 출·퇴근 차량 및 관사,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되었다. 각종 사고 수습 및 구조 작업 도중에 심리적 불안을 겪을 수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심리상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지역 소방서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원주 소방서는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한다.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강원도를 친환경 자동차 산업 메카로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내연기관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와 도가 도를 미래자동차 산업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원도의회는 제2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성호 의원 외 2명 발의)을 가결하고 도가 이모빌리티(e-mobility) 산업 육성에 매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기를 이용한 1~4인승 자동차를 만드는 이모빌리티 산업은 최근 황성을 중심으로 도내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황성은 2024년까지 420억 원을 투자해 우천농공단지를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올 상반기 초소형 전기차 출시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확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가 발의한 「강원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도시 육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수소특화단지 등 광범위한 표현을 수소산업, 수소도시 등으로 수정해 수소산업 육성 의지를 명확히 했다.

수소도시란 주거·교통수단을 수소에너지로 가동하며 지역 특화산업과 혁신기술 육성 등을 접목시키는 도시로 수소연료전지차를 생산하고 운행하는 자동차 도시를 말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가솔린 내연기관 대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를 이용해 모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친환경 자동차이다. 오염물질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물만 나올 뿐이라 미래형 자동차로 불린다.

지난해 12월 삼척이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되며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삼척시는 수소버스 도입 및 충전소 설치, 강원대 기숙사와 대학 원룸촌 연료전지발전 전기 공급 등을 추진하며 수소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갈 방침이다.

강원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사업과 수소도시 사업은 환경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얽혀 있는 도에 신산업에 대한 희망을 심으며 도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성장케 하리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 워크숍 개최

인사청문회 사례 연구 강의 듣고 토론

● 도의회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신명순)는 4월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및 사무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검증분야별 주요 착안 사항을 사전에 공유하기 위해 실시했다. 워크숍에서는 박노수 서울시립대 도시의정발전연구센터 부센터장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사례연구’에 대한 강의를 했으며,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답변 등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신명순 특위 위원장은 “강원연구원장은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후보자의 도덕성, 공직관은 물론, 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 경영·조직관리 능력, 연구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 전했다.

한편 강원연구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집행부의 요청서 제출에 따라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후보자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를 청문회 개최 후 3일 이내에 집행부로 송부하게 된다.



강원도의회 연구모임
‘남북강원도연구회’ 특강
개최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의 필요성 이해

●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남북강원도연구회(회장:곽도영 의원, 간사:안미모 의원)」는 4월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남북 강원도 협력 방안을 위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대북사업과 관련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뉴질랜드 세계선교교회 김남수 목사를 강사로 초청, 북한의 현 동향을 인지하고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또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체계적 단계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남북강원도연구회」 회장 곽도영 의원은 “이번 특강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북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강원도만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연구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북강원도연구회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여 북강원도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자발적 연구모임으로, 현재 14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심영섭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에서 선정한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광역의원(강원도 종합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청년친화헌정대상은 매년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정책과 입법 활동을 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이다. 특히 우수 광역의원 부문은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청년 관련 의정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한다.

심영섭 의원은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심영섭 위원장은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강원도의원으로서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되어 영광이며 청년활동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강릉을 비롯해 강원도를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제3회 2020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오는 9월 12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영섭 사회문화위원장
청년친화헌정대상
강원도 종합대상 수상

“청년이 정착할 지역 만들기 위해 앞장설 터”



동해북부선 추진기념식 ▶

강원도의회 한금석 의장이 4월 27일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 참석해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유라시아횡단열차 승차권을 들어보이며 조속한 개통을 기원하고 있다.



◀ 의정대표협의회

강원도의회 의정대표협의회는 4월 21일 제29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서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운영 등 임시회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의회-강원영서 민속5일장연합회 간담회 개최 ▶

한금석 강원도의회장과 원태경 의회운영위원장,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 신영재 의원, 정유선 의원은 4월 26일 의장 집무실에서 박용환 강원영서 민속5일장연합회 부회장 등 강원영서 지역 민속5일장연합회 회원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상인 생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픈 손가락, 발달장애인도 행복한 사회로

정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 얼마 전 강릉에 사는 지적장애 3급 발달장애인 김모 씨가 시택 식구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고 학대를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장애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무려 7년이 넘게 세 자녀와 함께 학대를 당하고 성추행마저 수시로 당했다.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집마저 빼앗겨 세 아이들과 함께 빈 몸으로 집을 나와야 했다. 그러나 사건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은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처럼 발달장애인이 학대나 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가 되고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 가는 사례를 수시로 접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보면서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질 듯한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살 수 있도록 가르치려 노력하지만 보다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강원도에는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도내 장애인 교육기관수를 31개소라 밝히고 있지만 장애인 전문시설이 아니라 대부분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 등이다. 실제로는 도내 4개의 장애인 아카데미 있을 뿐이고 그중 2곳만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도 손꼽을 정도이다. 원주, 강릉, 속초 등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문자해독교육을 하고 있으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3개 기관을 선정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정도이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도내 18개소로 춘천에 5개소, 원주 4개소, 강릉 3개소, 속초 2개소, 동해와 태백, 삼척, 영월에 각 1개소가 있어 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이 태반이다.

지난해 4월 도의회에서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으나 현재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은 전무하다.

이렇듯 도내 발달장애인들은 돌봄과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인지 능력과 사리 판단능력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평생 돌봄과 교육을 받는 것이 보장된다면 학대나 폭력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도 지역사회 구성원이다. 모두 우리들의 아픈 손가락이지만 여전히 사회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도교육청은 「강원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시스템을 확충해 이용자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인지력과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개별학습, 계절과 자연 경관의 변화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외부활동,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교육, 올바른 성의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소중히 할 수 있게 성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주간보호센터 등을 확충하여 장애인의 평생 돌봄과 자립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더는 늦추어선 안 된다.



태백금대봉과
대덕산

하늘이 내린 천상의 꽃밭 사이를 걷다

“선인들은 금대봉의 야생화 꽃밭을 두고 금대화해(金臺花海, 금대에 펼쳐진 꽃의 바다)라 이름 지었다. 지금 금대봉을 넘어 대덕산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이 길을 두고 꽃 비단길이라 부른다. 끝도 없이 펼쳐진 꽃밭은 천상 세계의 신비감을 선물한다.”

비밀의 화원
천상의 화원

금대봉과 대덕산을 오르는 길은 꼭꼭 숨겨두었던 보석을 찾아 떠나는 길인 것만 같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생화가 신비로운 아름다움을 뽐내고, 사람의 발길이 흔히 닿지 않았던 원시림은 신의 조각품처럼 오묘하다. 금대봉은 금대화해(金臺花海)라 불리며 태백 12경에 꼽혔다. 사람들은 이곳을 두고 비밀의 화원, 천상의 화원, 하늘나라 꽃밭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금대봉과 대덕산은 태백시와 삼척시에 걸쳐져 있다. 1993년 환경부가 ‘대덕산금대봉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했다. 금대봉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매봉산(1,303m), 남쪽은 함백산(1,573m), 북쪽에는 대덕산(1,307m)이 있다. 금대봉부터 대덕산으로 오르며 분주령을 지나는 길은 우리나라 최고의 야생화단지로 소문나 있다.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를 품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금대봉과 대덕산을 오르는 길은 두문동재탐방지원센터에서부터 시작돼 금대봉과 분주령을 지나 대덕산 정상을 거치고 검룡소로 빠져 나오는 코스다. 약 10km로 휴식시간을 포함해 5시간쯤 걸린다. 이곳은 2013년부터 1일 탐방객을 제한하고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다.



약 500여 종의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금대봉~대덕산 일대에서는 참평의다리, 섬기린초, 터리풀, 노랑갈퀴, 할미밀망 등 한국특산식물 15종과 털당강나무, 왜미나리아재비, 바이칼바람꽃 등 희귀식물 16종, 대성쓴풀, 한계령풀, 공작고사리 등 특수식물이 자라고 있다. 금대봉의 붉고 노란 야생화가 하늘 아래 첫 동네에서 피어난 안개와 만나면 비밀의 화원에 온 것 같은 신비감에 빠져든다. 금대봉부터 분주령까지 약 3km는 고색창연한 원시림 사이에서 수줍게 피어난 들꽃의 향기에 취하는 구간이다.

이곳은 수천년 원시림을 간직한 곳이라 용트림을 하는 듯한 외형의 나무나 옆드린 동물처럼 생긴 연리지 등 희한한 모양새의 나무들이 감탄사를 안겨주기도 한다. 들꽃 군락지인 분주령을 지나 대덕산까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르면 수십만 평의 야생화 단지가 나타난다.

대덕산 정상은 범꼬리 군락지다.

흰 범꼬리꽃이 산꼭대기 너른 벌판을 하얗게 뒤덮고 있다. 산 위가 크게 평평해 ‘큰 덕’을 지닌 듯하다 해서 대덕산(大德山)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흰 범꼬리꽃의 광활한 향연에 빠지다 보면 사념과 욕심은 사라진다. 멀리서는 겹겹이 포개진 능선이 산수화처럼 그려져 있어 천상낙원이 여기다 싶다.

이곳은 매년 4월부터 9월까지만 개방한다.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매월 1일과 15일 오전 10시에 예약할 수 있다. 1일 400명까지 입산할 수 있다. 자연환경해설사가 야생화와 금대봉에 대한 전설 등을 알려주는 ‘꽃 비단길, 금대봉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속초영랑호와 범바위

구슬 감춰둔 호수 지키는 호랑이바위

“영랑호는 ‘구슬을 감춰둔 곳’처럼 맑고 청아하다. 그곳에 감춰진 구슬을 지키려는 듯 호랑이처럼 거대하고 장엄한 위용을 한 바위가 웅크리고 있다. 범바위다. 범바위 주변은 정말로 호랑이가 출범할 정도로 산림이 울창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맑고 청아한
호수결으로

조선시대의 실학자 이종환은 《택리지》에서 ‘구슬을 감춰둔 것 같은 곳’이라며 영랑호의 신비로움을 말했다.

영랑호는 백사가 퇴적하여 발달한 자연호수로 속초시 장사동,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일대에 걸쳐 있는 석호로 둘레가 8km, 넓이는 약 1.21km²(36만 평)에 이른다.

영랑호 중간지점 서남쪽에 장쾌하게 서 있는 큰 바위가 범바위이다. 호수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장대하고 이채롭다. 돌계단과 나무 데크를 따라 범바위 꼭대기로 오르면 거대한 자연석들이 바위산 위에 올라서 있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범바위의 웅장한 자태는 물론이거니와 산꼭대기에 둥글고 완만한 바위들이 모여 있다는 게 신기해 천연기념물 지정까지 논의되고 있다.

범바위 위에서 한바퀴를 돌며 바라보는 설악산과 속초 시내의 전경은 가슴까지 탁 트이게 해준다. 범바위 바로 옆에는 빨간 정자가 서 있어 바위 사이를 휘도는 시원 바람을 맞으며 휴식할 수 있다.



영랑호 둘레를 걷는 길은 ‘화랑도 순례길’이라고도 부른다. 신라 화랑 영랑과 그 일행이 노닐던 곳이라는 기록 때문이다. 고려시대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는 영랑호의 지명 유래가 기록돼 있다. 영랑은 신라 중대 때의 화랑이었다. 그는 술랑·남랑·안상과 함께 사선(四仙)으로 꼽혔다. 이들은 금강산에서 수련 후 고성을 들러 영랑호에서 한참을 즐겼다는 게 기록과 유적으로 남아있다.

화랑도 순례길 8km 코스는 영랑호 잔디광장을 출발해 카누경기장-속초의료원을 거쳐 잔디광장까지 영랑호를 한 바퀴 걷는 길이다. 걸어서 돌려면 2시간은 족히 걸린다. 자전거를 타면 40~50분이면 된다. 영랑호 둘레길에는 뱃나무가 즐비해서 있다. 봄이면 하얀 꽃눈이 휘날리는 모습이 꿈길인 듯한 환상을 안겨준다. 여름이면 빨간 줄장미가 다문다문 피어 여행객의 마음을 뒤흔든다. 호수 위를 걷는 나무 데크 길



도 군데군데 놓여 수련과 부들 사이를 걸으며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호수 가운데로 범바위에서 떨어진 듯한 커다랗고 둥근 바위들이 뚝뚝 놓여있다. 재미있게도 공룡머리 형상이란 이름을 가진 바위도 있다.

영랑호 정문 진입로 안쪽 입구에는 넓은 잔디광장 뒤로 조류 동물원이 있다. 수도를 하던 도사에게 관음보살이 나타나 득도를 하였다는 관음암과 보광사라는 사찰이 지척이다. 보광사 안 연못도 구경거리다. 사찰 입구에는 1960년대 미니골프를 체험할 수 있는 보광미니골프장이 있다. 50년 전 근대 오락이 향수에 젖게 한다. 인근에 있는 화랑도 체험장에서는 마상무예, 궁도, 명상, 무예, 다도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20년 월별 회기운영 일정

월 별	회 기	예 상 안 건	비 고
계	140일 이내	(정례회 56, 임시회 74, 예비회기 10)	회 기
2월	제287회 임시회 2.11 ~ 2.20 (10일간)	■ 신년연설(도지사, 교육감)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3월	제288회 임시회 3.17 ~ 3.20 (4일간)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등	3.1 삼일절
	제289회 임시회 3.24 ~ 3.27 (4일간)	■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23~4.11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4월	제290회 임시회 4.21 ~ 4.29 (9일간)	■ 제1차 도정질문 실시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4.15 국회의원선거
5월	제291회 임시회 5.6 ~ 5.19 (14일간)	■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5.5 어린이날
6월	제292회 정례회 6.2 ~ 6.18 (17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 제2차 도정질문 실시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6.6 현충일
7월	제293회 임시회 7.3 ~ 7.15 (13일간)	■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7.8 도민의 날 행사
9월	제294회 임시회 9.2 ~ 9.11(10일간)	■ 도의회 개원 64주년 기념행사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56.9.6 제1회 도의회
10월	제295회 임시회 10.13 ~ 10.22 (10일간)	■ 제3차 도정질문 실시 ■ 어린이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10.1 추석 10.3 개천절 10.9 한글날
11월·12월	제296회 정례회 11.3 ~ 12.11 (39일간)	■ 행정사무감사 실시 (업무보고 병행) ■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당면 안건 심의·처리 및 현지시찰 등	
필요시	예비회기 (13일간)	■ 긴급 임시회 소집 또는 기존회기 연장 운영	

제291회 임시회 5.6~5.19(14일)

2020 May

5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제292회 임시회 6.2~6.18(17일)

2020 June

6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사회적” 거리 두기 → “생활 속” 거리 두기

오늘부터 생활방역체계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 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2020.5.6. 기준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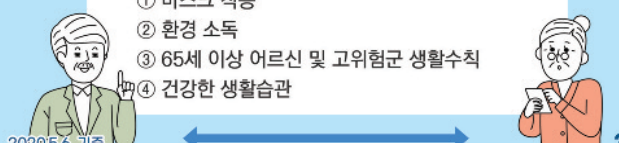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행동요령 Check!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개인방역 -

기본수칙

-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보조수칙

- ① 마스크 착용
- ② 환경 소독
-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 ④ 건강한 생활습관



2020.5.6. 기준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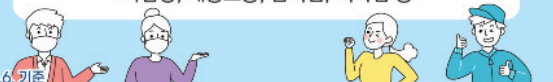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행동요령 Check!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 집단방역 -

기본수칙

-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 ④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보조수칙

[원칙]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
[구성] 총 12개 부처, 31개 세부지침
-사업장, 대중교통, 음식점, 백화점 등



2020.5.6. 기준 4/5

보건복지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하면서도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0.5.6. 기준 5/5

코로나19 대응 의료진과 관계기관 여러분을
강원도의회가 응원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강원도민 덕분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함께 응원합니다.

